



주) 럭키 울산공장

태화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과 제일의 항구도시 부산을 잇는 국도변에 자리한 럭키 울산공장은 16만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3만평 규모의 대단위 종합공장이 들어서 있는 독립 공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1974년 분말세제 및 DOP공장 준공 이래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압출, 사출제품, 카렌다 제품, 화장비누, 솔비톨, 가소제등을 생산하는 복합공

장으로 울산 및 부산항에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럭키에서는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약 1,700명의 임직원이 모두 하나로 뭉쳐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일인자 정신으로 완벽한 제품의 생산과 무재해공장 실현의 기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지향의 가치관과 첨단기술로 고객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세계적 초우량 화학회사를 이룩하겠다는 VISION 달성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럭키 울산공장은 “인간존중 산업안전”,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안전관리 이념을 바탕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무재해공장실현의 공장안전방침 아래 주재임원에서 부터 일선 사원에 이르기 까지 각 관리 책임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라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위해요소 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제도를 활용, 재해예방 활동을 주력하여 안전위해요소를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모든 안전관리 사내규정을 개정하여 대외환경과 사회적 안전보건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대외기관에 공신력을 가져 오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사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존의 위험예지훈련을 공장 특성에 맞게 시업전 5분간 미팅으로 명칭을 변경, '89년 9월부터 20회에 걸쳐 전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제



거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전에 시업전 5분간 미팅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1회이상의 안전회보를 발행하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 등을 홍보, 계몽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을 위해 각실별 안전교안을 작성하여 위험 포인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설비 결합에 의한 안전사고를 ZERO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방재시험소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장 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안전진단팀을 운용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신, 증설 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가동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지금까지 설비결합에 의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확립, 일일 안전점검제도 정착과 소방시설 상시 가용체제를 위해 소방 전문업체와 사내 자체 점검반을 편성

하여 월 1회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는 자동소화설비, CO₂ 및 하론소화설비를 집중 배치하였으며 전사원 소화기 사용방법 100% 숙지를 위한 실습교육과 주요 소방시설의 보완정비로 긴급 비상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등 안전·화재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91년 11월 소방의 날에 방화관리 우수공장으로 선정되어 내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사적으로는 매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사 안전진단 결과 19개 사업장중 최우수공장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공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89년 부터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소음, 분진, 유기용제 발생 공정의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활동 결과 '88년 기점으로 매년 안전·화재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92년도에는 무재해 공장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